2. 2027학년도 모의 논술고사

성신여자대학교
SUNGSHIN WOMEN'S UNIVERSITY

인문계열

지원학과(부)	성 명	생년월일 (예: 050512)						수험번호											
		⓪	⓪	⓪	⓪	⓪	⓪	⓪	⓪	⓪	⓪	⓪	⓪	⓪	⓪	⓪	⓪	⓪	⓪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유 의 사 항

1.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2. 답안 작성은 검은색 볼펜(연필 사용 불가)으로만 가능합니다.

3. 답안의 정해진 작성 분량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답안 영역에 작성한 내용만 인정됩니다.

4. 답안에 자신을 드러내거나 알릴 수 있는 표현 및 표시를 하면 안됩니다.

5. 답안지와 문제지, 연습지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문항 및 제시문

※ 시험 시간: 100분, 답안 분량: 문제당 800 ~ 1,000자
※ 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은 지식 생산과 학습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Chat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인간이 작성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글쓰기, 번역, 요약, 정보 검색, 코드 작성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한다. 과거에는 전문가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던 지식 생산 능력이 누구에게나 쉽게 제공되면서, 지식의 생산과 소비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교육과 학습에서 여러 긍정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생성형 AI는 학습자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탐색하고, 복잡한 개념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외국어 번역, 글쓰기 보조, 맞춤형 피드백 제공 등을 통해 학습 효율을 높이고 교육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 특히 지역·경제적 격차로 인해 충분한 교육 자원을 제공받기 어려운 학습자들에게 AI 기반 학습 도구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일부 학자들은 생성형 AI가 교육의 민주화를 촉진할 가능성을 지닌다고 본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확산은 여러가지 윤리적·교육적 문제를 제기한다. 학습자가 AI의 결과물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 사고 과정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 대학 교육은 단순히 정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아 왔다. 그러나 학생들이 과제나 글쓰기를 AI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경우, 스스로 사고하고 표현하는 경험이 축소될 위험이 있다.

표절과 학습 윤리 문제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기존의 표절은 다른 사람의 글을 복사하여 사용하는 행위로 이해되었지만, AI가 생성한 문장을 과제에 활용하는 경우 어디까지 자신의 작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 실제로 여러 대학이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으며, 일부 교육기관은 AI 사용을 제한하는 반면 다른 기관들은 AI 활용 능력 자체를 새로운 디지털 문해력의 일부로 인정하기도 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 사용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 생산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과 연결된다.

나

교육은 개인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경제적 성과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은 교육을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의 수익을 위한 투자로 간주하는 인간 자본 이론(human capital theory)에 기반을 두고 있다. 게리 베커(Gary Becker)는 그의 저서 『인적 자본』(Human Capital)에서 교육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기술, 경험이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이는 임금 상승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교육은 단순히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베커에 따르면 개인은 교육을 선택할 때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 예컨대 대학 교육은 등록금과 생활비뿐 아니라, 재학 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까지 요구한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선택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더 높은 임금, 안정된 고용, 그리고 사회적 지위 상승과 같은 편익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은 미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장기적 투자로 이해된다.

또한 교육의 경제적 효용은 개인의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교육 수준이 향상될수록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생산성이 증가하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발전이 촉진되며, 국가 경제의 경쟁력 역시 강화된다. 숙련된 노동력이 많아질수록 기업은 더 높은 수준의 기술 혁신을 추진할 수 있고, 이는 다시 경제 성장과 고용 확대를 가져오는 선순환을 형성한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교육을 사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핵심 정책 영역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그러나 인간 자본 이론은 교육의 경제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학력이 반드시 개인의 생산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교육이 노동시장에서 능력을 보여 주는 신호(signal)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한 교육 기회의 차이는 계층 간 격차와 직결되기 때문에, 경제적 효용만을 기준으로 교육을 바라볼 경우 교육이 지닌 사회적·윤리적 의미가 축소될 위험도 있다. 그럼에도 인간 자본 이론은 개인과 국가가 왜 교육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틀로 평가받는다.

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기능을 넘어, 사회 구성원이 공유해야 할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는 사회화 과정을 담당한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읽기와 쓰기, 수리 능력과 같은 기초 지식을 가르치는 동시에 협력, 규칙 준수, 책임감, 경쟁과 같은 사회적 행동 양식을 함께 학습하게 한다. 학생들은 시간 엄수, 역할 분담, 타인과의 의사소통, 집단 규범의 준수 등과 같은 학교 생활의 경험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한다. 이로써 교육은 개인의 성장 수단을 넘어 사회 질서 유지와 공동체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제도로 기능한다.

이러한 기능은 교육을 사회 안정의 핵심 장치로 이해하는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강조된다. 에밀 뒤르켐(Émile Durkheim)은 교육이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규범과 도덕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개인주의가 강화되고 사회적 분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을 통합할 공통의 가치 체계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기능주의는 학교가 시험과 평가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구분하고 다양한 직업과 역할에 사람들을 배치함으로써, 능력에 따른 공정한 경쟁과 사회 전체의 효율성에 기여한다고 본다.

그러나 갈등 이론은 교육이 사회 통합보다는 기존의 권력 구조와 계층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문화 자본(cultural capital) 개념을 통해, 상류층이 보유한 언어 습관, 문화 경험, 교육 방식 등이 학교 교육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독서 습관, 예술 경험, 특정한 언어 표현 방식은 학교가 요구하는 교양과 연결되며, 이러한 자원을 가진 학생들은 학업 성취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 결국 학교는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경쟁의 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특정 계층의 문화를 기준으로 한 평가 체계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할 수 있다. 이처럼 교육은 사회 구성원에게 공통의 가치와 규범을 전달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심화시키는 양면적 성격을 지닌다.

라

생성형 인공지능은 정보 접근성과 학습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기술로 평가받는다. 특히 ChatGPT와 같은 시스템은 글쓰기, 번역, 정보 검색, 요약 등 다양한 작업을 빠르게 수행하며 교육과 노동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기존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거나 심화시킬 가능성을 함께 지닌다. 생성형 AI를 효과

적으로 활용하려면 디지털 기기 접근성뿐 아니라 언어 능력, 정보 해석 능력, 프롬프트 작성 능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문해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고학력 계층이나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AI를 학습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노년층이나 정보 취약 계층은 기술 활용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

또한 생성형 AI는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사회적 편견을 그대로 반영할 위험이 있다. 컴퓨터 과학자 조이부올라미니(Joy Buolamwini)의 연구에 따르면 얼굴 인식 알고리즘은 백인 남성보다 여성이나 유색인종의 얼굴을 더 높은 오류율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AI 시스템이 중립적인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에 내재된 사회적 편향을 학습하고 재생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일부 생성형 AI는 특정 직업을 남성과 연결하거나 여성에게 돌봄·감정 노동 중심의 역할을 제시하는 등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응답을 내놓기도 한다. 또한, 미디어 연구자 사피야 우모자 노블(Safiya Umoja Noble)은 검색 알고리즘과 AI 시스템이 인종·성별 편견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기술 기업들이 사용하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사회적 권력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특정 집단의 경험과 언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AI 역시 불평등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무엇을 표준으로 간주할 것인가라는 사회적·윤리적 문제와 연결된다.

결국 생성형 AI 시대의 핵심 과제는 기술 발전 자체가 아니라, 기술의 혜택과 위험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있다. 따라서 교육과 정책은 AI 활용 능력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접근성의 차이와 데이터 편향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적절한 제도적 보완이 없다면 생성형 AI는 기존의 계층·세대·성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도구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 1】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도 교육은 왜 필수적인지 제시문 〈가〉, 〈나〉, 〈다〉의 관점을 종합하여 설명하시오. (800-1000자)

【문제 2】

생성형 인공지능은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불평등을 만들기도 한다. 제시문 〈다〉, 〈라〉를 바탕으로 이러한 양면성의 구체적 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800-1000자)

2. 출제 의도

- 이번 모의논술고사 문제는 종래 문제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범위에서 출제하였으며, 고등학교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통합사회〉, 〈사회·문화〉, 〈경제〉, 〈현대사회와 윤리〉, 〈인공지능 기초〉 등의 과목에서 학습한 내용을 구체적 과제 해결에 응용함으로써, 제시문에 대한 이해와 분석, 비판적 평가, 창의적 응용과 합리적 논증 역량을 포괄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그와 같은 역량을 다양한 관점에서 각각 평가하고자 하였다.
- 각 제시문과 문제는 고등학교 수준의 인문·사회적 소양 및 일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일부 제시문에서는 구체적 사례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그 내용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확산은 지식 생산과 학습 방식, 그리고 교육의 역할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생성형 AI는 정보 접근성과 학습 효율성을 높여 교육 기회를 확대할 가능성을 지니는 동시에, 디지털 접근성·문해력·사회적 자원의 차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 역시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인공지능 기술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문해력과 시민적 판단 능력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 제시문은 생성형 AI가 교육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사회적·윤리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교육이 개인의 생산성과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수단이라는 관점과 함께, 사회화와 가치 형성, 사회 통합 및 불평등 재생산이라는 양면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함께 다루고 있다. 또한 AI 기술이 사회적 편견과 기존의 계층·세대·성별 격차를 재생산할 수 있다는 문제 역시 제시함으로써, 기술 발전이 곧바로 사회적 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문제는 응시자가 각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도 교육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교육이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AI 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비판적 사고력과 윤리적 판단 능력, 그리고 공정한 교육 기회의 중요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논증할 수 있는지도 함께 평가하고자 하였다.

3. 제시문의 출처 및 관련 교과서

- 제시문〈가〉

출처	• Jose Antonio Bowen & C. Edward Watson(2024). Teaching with AI: A Practical Guide to a New Era of Human Learning. Johns Hopkins UP의 핵심 논의를 요약 및 재구성 • Henry Kissinger, Eric Schmidt, & Daniel Huttenlocher(2021). *The Age of AI: And Our Human Future.* Little, Brown, and Co.의 핵심 논의를 요약 및 재구성 •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3), 『생성형 AI 시대의 교육 변화와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요약 및 재구성
관련 교과서	• 김국현 외(2024), 『고등학교 현대사회와 윤리』의 〈인공지능 윤리〉 단원, 비상교육 • 변순용 외(2024), 『고등학교 윤리문제 탐구』의 〈인공지능 시대의 삶과 윤리적 탐구〉 영역, 천재교육

- 제시문〈나〉

출처	• Gary S. Becker(1993).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3rd ed., The U of Chicago P의 핵심 논의를 요약 및 재구성
관련 교과서	• 박형준 외(2024), 『고등학교 경제』의 〈경제생활과 합리적 선택〉 단원, 천재교육 • 허수미 외(2024), 『고등학교 경제』 〈시장과 경제 활동〉 단원, 미래엔 • 구정화 외(2024). 『고등학교 사회와 문화』의 〈사회 불평등과 사회 복지〉 단원, 천재교육

• 제시문〈다〉

출처	• Émile Durkheim(1922). Education and Sociology. Trans. by Sherwood D. Fox(1956), Free Press의 핵심 논의 요약 및 재구성 • Pierre Bourdieu & Jean-Claude Passeron(1990). Reproduction in Education, Society and Culture, Sage Publications의 핵심 논의 요약 및 재구성
관련 교과서	• 구정화 외(2024).『고등학교 사회와 문화』의 〈개인과 사회 구조〉 〈사회 불평등과 사회복지〉 단원, 천재교육 • 정필운 외(2024).『고등학교 통합사회 2』의 〈사회정의와 불평등〉 단원, 비상교육

• 제시문 〈라〉

출처	• 김현진, "생성형 AI와 편향성", IP & Data 法 제3권 1호, 2023, pp. 75-105. • Joy Buolamwini & Timnit Gebru(2018). "Gender Shades: Intersectional Accuracy Disparities in Commercial Gender Classification," Proceedings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81, 1-15의 핵심 논의 요약 및 재구성 • Safiya Umoja Noble(2018). Algorithms of Oppression: How Search Engines Reinforce Racism. NYUP의 핵심 논의 요약 및 재구성
관련 교과서	• 김국현 외(2024),『고등학교 현대사회와 윤리』의 〈인공지능 윤리〉 단원, 비상교육 • 정창우 외(2024),『고등학교 현대사회와 윤리』의 〈인공지능 윤리〉 단원, 미래엔 • 정필운 외(2024).『고등학교 통합사회 2』의 〈사회정의와 불평등〉 단원, 비상교육

관련 교육과정

• 통합사회 2 - 〈Ⅰ. 인권 보장과 헌법〉 〈Ⅱ. 사회정의와 불평등〉

성취기준 코드	내용
[10통사2-01-03]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청소년 노동권 침해 등 인권 문제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구한다.
[10통사2-02-01]	정의의 의미와 정의가 요구되는 이유를 파악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정의의 실질적 기준을 탐구한다.
[10통사2-02-02]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기준으로 다양한 정의관을 비교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설명한다
[10통사2-02-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시민으로서의 실천 방안을 제안한다.

• 사회과 - 〈사회와 문화〉

성취기준 코드	내용
[12사문02-04]	사회 변동이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 작용의 산물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현대 사회의 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 운동의 유형과 특징을 탐구한다.
[10통사2-02-03]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분석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입 장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불평등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 사회과 - 〈경제〉

성취기준 코드	내용
[12경제01-02]	다양한 사례를 통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능력을 계발하고 매몰 비용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함과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함을 인식한다.

• 도덕과 – 〈현대사회와 윤리〉

성취기준 코드	내용
[12현윤01-02]	동양 및 서양의 윤리사상, 사회사상의 접근들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현대사회의 다양한 윤리 문제와 쟁점에 적용하여 윤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12현윤03-03]	윤리적인 인공지능을 위하여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를 설명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윤리 문제의 해결 방안을 인공지능 윤리의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 정보 – 〈인공지능 기초〉

성취기준 코드	내용
[12인기-03-03]	인공지능에 대한 일방적인 수용 또는 거부보다는, 비판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인간과 공존해야 하는 존재로서 인공지능의 역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12인기-03-04]	인간의 편향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편향성으로 인해 인공지능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딜레마 상황에서 윤리적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제시문 해설

• 제시문 〈가〉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이 지식의 생산과 학습 방식에 가져온 근본적 변화를 다룬다. Chat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전문가나 고등교육 이수자에게만 허용되던 지식 생산 능력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지식의 생산과 소비 구조 자체를 재편하고 있다. 이는 정보의 탐색, 맞춤형 피드백 제공, 글쓰기 보조 등을 통해 학습 효율과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시문 〈가〉는 학습자가 AI 결과물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사고 과정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AI가 생성한 문장을 과제에 활용하는 행위를 어디까지 자신의 작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윤리적 문제를 함께 언급한다. 마지막 문단에서 지식 생산의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AI시대 교육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

• 제시문 〈나〉는 게리 베커(Gary Becker)의 인간 자본 이론에 근거하여 교육의 경제적 의미를 설명한다. 교육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의 수익을 위한 투자이며, 개인은 비용과 편익을 합리적으로 비교하여 교육을 선택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등록금과 생활비뿐 아니라 기회비용까지 포함하는 교육의 비용 구조를 설명하고, 교육의 경제적 효용이 개인을 넘어 국가 경쟁력으로 확장되는 선순환 구조를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학력은 인간의 생산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과 함께 교육 기회의 격차가 계층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인간 자본 이론의 내용을 균형감 있게 보여 준다.

• 제시문 〈다〉는 교육의 사회화 기능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을 제시한다. 첫째, 에밀 뒤르켐(Émile Durkheim)으로 대표되는 기능주의 관점은 교육이 공동체의 가치와 규범을 다음 세대에 전달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고, 시험과 평가를 통해 능력에 따른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 통합과 효율성에 기여한다고 본다. 둘째,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로 대표되는 갈등 이론 관점은 문화 자본 개념을 통해, 학교가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경쟁의 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계층의 문화를 기준으로 한 평가 체계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한다고 비판한다. 제시문 〈다〉는 결론적으로 교육이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동시에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양면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한다. 학생은 이를 통해 교육이라는 제도가 갖는 이중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사회 문제에 비판적으로 적용해 볼 것을 요구받는다.

- 제시문 〈라〉는 생성형 AI가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첫째, AI 활용에 필요한 새로운 디지털 문해력의 격차로 인해 노년층과 정보 취약 계층이 정보에 대한 접근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 둘째, AI가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사회적 편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재생산하면서 차별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함께 지적한다. 부올람위니(Joy Buolamwini)의 얼굴 인식 알고리즘 연구와 노블(Safiya Umoja Noble)의 검색 알고리즘 비판은 AI가 중립적 기술이 아니라 무엇을 표준으로 간주할 것인가라는 윤리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제시문 〈라〉는 생성형 AI 시대의 핵심 과제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 발전으로 인한 혜택과 위험의 분배에 있음을 강조하며, 학생들은 기술 중립성 신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AI시대의 공정성과 책임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정립할 것을 요구받는다.

5. 문항 해설

【문제 1】

본 문제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도 교육이 여전히 필수적인 이유를 제시문 〈가〉,〈나〉,〈다〉의 관점을 종합하여 논술하도록 요구한다.
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서술이 필요하다.

첫째, 제시문 〈가〉가 제시하는 AI 시대 교육의 변화와 도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술하여야 한다. 생성형 AI가 지식 생산과 학습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학습자가 AI 결과물에 의존할 경우 자료를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사고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식 생산의 주체에 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짚어야 한다. 즉 AI가 정보 제공의 기능을 대체할수록 인간의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교육 본연의 역할은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는 논점을 도출하여야 한다.

둘째, 제시문 〈나〉가 제시하는 인간 자본 이론의 관점을 활용하여, 교육이 개인과 사회의 경제적 차원에서 갖는 의의를 서술하여야 한다. 교육이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미래 수익을 위한 투자이며, 그 효용이 개인을 넘어 국가 경쟁력으로 확장된다는 점을 짚되, AI 시대에는 AI를 활용하고 비판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새로운 인간 자본의 핵심 요소가 되므로 교육의 경제적 의의가 약화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된다는 논증으로 연결할 수 있다. 대안으로, AI가 단순 정보 전달과 반복 노동을 대체하는 환경일수록 교육이 길러내는 고차원적 사고력과 창의성의 가치가 더욱 커진다는 논증도 가능하다.

셋째, 제시문 〈다〉의 사회화와 교육의 양면성 관점에서 교육의 사회적·공동체적 의의를 논증하여야 한다. 교육이 단순히 지식과 기술의 전달이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는 사회화 과정이며, 협력·규칙 준수·타인과의 의사소통 같은 사회적 행동 양식을 길러내는 핵심 제도라는 점을 짚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화 기능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며, 부르디외가 지적한 문화 자본을 통한 불평등 재생산의 위험을 인식하고 시정할 수 있는 비판적 안목 역시 교육을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면 답안의 깊이가 더해진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세 제시문의 관점이 AI 시대에도 교육이 필수적인 이유라는 공통

질문에 어떻게 수렴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학생이 세 관점을 단순 나열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종합하였다면 어떤 강조점을 택하더라도 무방함. 즉 세 관점의 단순 요약 자체보다 그 종합의 사고 흐름을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

【문제 2】

본 문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새로운 불평등을 만들 수 있다는 양면성을 제시문 〈다〉와 제시문 〈라〉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도록 요구한다.
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서술이 필요하다.

첫째, 제시문 〈다〉의 사회화와 불평등 재생산의 관점에서 AI가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불평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부르디외가 제시한 문화 자본 개념이 학교 교육에서 특정 계층의 문화를 표준으로 삼아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과정을 설명하듯, 오늘날 생성형 AI는 새로운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매개체로 작동시킬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여야 한다. 즉 표면적으로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처럼 보이는 AI 기술이 실제로는 기존 계층·세대·성별간 차별을 재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짚을 필요가 있다. 또한 AI는 학습된 데이터를 충실히 반영할 뿐 차별의 근원은 사회 구조에 있다는 기술 중립성이 주장하는 반론까지 포함하여 각 주장들의 타당성과 한계를 균형감 있게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제시문 〈라〉가 제시하는 생성형 AI의 양면성, 즉 교육 기회 확대의 측면과 새로운 불평등 야기의 측면을 균형감 있게 파악하여 서술하여야 한다. 한편으로 AI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학습 효율을 향상시켜 지역·경제적 격차로 인해 충분한 교육 기회를 누리지 못하던 학습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다른 한편,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디지털 문해력의 격차로 인해 노년층과 정보 취약 계층이 정보로의 접근이 배제될 수 있으며, AI가 학습과정에서 데이터에 내재된 사회적 편견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재생산함으로써 사회적 차별을 유발한다는 점을 함께 언급해야 한다. 부올람위니의 얼굴 인식 연구와 노블의 검색 알고리즘 비판이 보여주듯, 이러한 차별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무엇을 표준으로 간주할 것인가라는 사회윤리적 문제와 연결된다.

셋째, 두 제시문을 통합한 관점에서 AI 시대 불평등 문제의 해결 방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AI 편향을 데이터와 알고리즘 차원의 문제로만 이해할 경우 그 배후에 있는 개발 주체의 책임 구조와 디지털 자본의 분배 문제가 가려질 수 있다는 점, 새로운 디지털 소수자 집단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나아가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이 사회 통합과 불평등의 재생산이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갖듯 AI 또한 양면성을 갖기 때문에, AI 기술의 운영에 대한 제도적·교육적 개입이 중요하다는 논증이 가능하다. 따라서 디지털 문해력 교육의 보편화,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두 제시문의 관점을 통합하여 자신의 견해를 정립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방안 자체의 완결성보다 그 사고의 흐름을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

6. 채점 기준

배점기준표(인문계열)

문항	배점	세 부 내 용
문제1	5	* 〈가〉가 제시하는 AI 시대 교육의 변화와 도전, 특히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 능력에 대한 위협과 지식 생산의 주체에 관한 질문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20	* 〈나〉의 인간 자본 이론 관점을 활용하여 AI 시대에도 교육의 경제적 의의가 유지되거나 강화된다는 점을 적절히 논증하고 있는가?
	20	* 〈다〉의 사회화와 양면성 관점에서 AI가 대체할 수 없는 교육의 사회적·공동체적 기능을 적절히 제시하고, 세 제시문의 관점을 AI 시대에도 교육이 필수적인 이유라는 공통 질문으로 통합·종합하고 있는가?
	5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분량을 지켜서 논술하였는가?
문제2	15	* 〈다〉가 제시하는 사회화·문화 자본·불평등 재생산의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AI 시대의 디지털 자본에 의한 불평등 재생산이라는 논점으로 적용·확장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아울러 AI 편향을 사회 구조의 문제로 환원하는 기술 중립성 반론의 타당성과 한계를 균형 있게 논증하고 있는가?
	10	* 〈라〉의 핵심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생성형 AI가 디지털 문해력 격차를 통한 접근의 불평등과 학습 데이터 편향을 통한 결과의 불평등을 동시에 발생시킨다는 점을 함께 서술하고 있는가?
	20	* 〈다〉와 〈라〉의 관점을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AI가 교육 기회 확대와 불평등 심화라는 양면성을 갖는다는 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그 의의와 한계를 균형 있게 논술하고 있는가? 또한 논증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디지털 문해력 교육의 보편화,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시민·기업·국가의 책임 분담 등)을 제안하고 있는가?
	5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분량을 지켜서 논술하였는가?

【문제 1】

1번 문제의 답안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가〉가 제시하는 AI 시대 교육의 변화와 도전을 이해하고 서술하는 부분.
둘째, 〈나〉의 인간 자본 이론 관점을 활용하여 AI 시대에도 교육이 갖는 경제적 의미를 서술하는 부분.
셋째, 〈다〉의 사회화 및 양면성 관점에서 AI가 대체할 수 없는 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제시하고, 세 제시문을 종합하는 부분.

첫째 부분
- 〈가〉의 핵심 논점에 대한 이해
- 생성형 AI가 지식의 생산과 학습 방식을 변화시키며 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과 지식 생산의 주체에 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는 점을 균형 있게 파악하였는가에 관한 서술

둘째 부분
- 〈나〉의 인간 자본 이론에 대한 이해와 설명
- 〈나〉의 내용이 AI 시대에도 교육이 필수적인 이유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서술. 예를 들어, AI

를 활용하고 비판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새로운 인간 자본의 핵심 요소가 되므로 교육의 경제적 의미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서술, 또는 AI가 단순 정보 전달과 반복 노동을 대체하는 환경일수록 교육이 길러내는 고차원적 사고력과 창의성의 가치가 더욱 커진다는 서술이 가능함.

셋째 부분
- 〈다〉의 사회화 및 양면성 관점과 세 제시문의 종합에 관한 설명
- 교육은 단순히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는 사회화 과정이며, 이러한 기능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가에 관한 서술. 나아가 부르디외가 지적한 문화 자본에 의한 불평등 재생산의 위험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 역시 교육을 통해서만 형성된다는 논점으로 확장하면 답안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세 제시문의 관점이 AI 시대에도 교육이 필수적인 이유라는 공통 질문으로 수렴하며 정리하는 것이므로, 세 관점을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종합하였다면 어떤 강조점을 선택하더라도 무방함. 세 관점을 통합하여 자신의 논지를 도출한 점에 주목하여 평가.

【문제 2】

2번 문제의 답안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다〉가 주장하는 사회화, 문화 자본, 사회적 불평등 재생산 관점에서 AI가 야기하는 새로운 불평등을 비판적으로 검토
둘째, 〈라〉의 핵심 주장과 생성형 AI가 지니는 양면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서술
셋째, 두 제시문을 통합한 관점에서 AI 시대 불평등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해결 방향을 제시

첫째 부분
- 〈다〉의 관점을 활용한 비판적 분석
- 부르디외가 제시한 문화 자본 개념은 학교 교육이 특정 계층의 문화를 표준으로 삼아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해 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화 자본 개념을 기초로, 오늘날 생성형 AI가 디지털 자본을 새로운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매개체로 작동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서술, 표면적으로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처럼 보이는 AI 기술이 실제로는 기술 중립성 아래 기존의 계층·세대·성별 질서를 재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는가에 관한 서술. 또한 AI는 데이터를 충실히 반영할 뿐 차별의 근원은 사회 구조에 있다는 기술 중립성 주장의 타당성과 한계를 균형감 있게 검토하였는가에 관한 서술

둘째 부분
- 〈라〉의 핵심 주장과 AI의 양면성에 대한 이해
- 생성형 AI가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학습 효율을 향상시켜 지역 및 경제적 격차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던 학습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그러나 동시에 AI 활용에 필요한 디지털 문해력의 격차로 인해 노년층과 정보 취약 계층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또한 AI가 학습 데이터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적 편견을 그대로 반영 및 재생산함으로써 차별을 재생산한다는 논점을 균형 있게 서술하였는가에 관한 평가

셋째 부분
- 두 제시문을 통합하면서 AI 시대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을 자신의 견해로 제시
- 〈다〉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은 사회를 통합하고 동시에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는 양면성을 동시에 갖고 있듯이 AI 또한 양면성을 갖기 때문에, AI에 대한 제도적·교육적 개입이 중요하다는 논증을 펼치고,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대중 교육의 보편화,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안하였는가에 관한 서술.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두 제시문의 관점을 통합하여 자신의 견해를 정립하는 것이므로, 사고의 흐름을 평가기준으로 삼고자 하며, 나름대로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 점에 주목하여 평가.

앞에서 제시한 내용과 조건에 의거하여, 【문제 1】과 【문제 2】의 답안은 다음과 같이 6등급으로 평가한다.
- 1등급: 위의 4가지 모두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도 갖춘 경우
- 2등급: 위의 4가지 모두 수행했으나 논증력·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또는 위의 4가지 중 3가지를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표현력을 갖춘 경우
- 3등급: 위의 4가지 중 3가지를 수행했으나 논증력·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또는 위의 4가지 중 2가지를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표현력을 갖춘 경우
- 4등급: 위의 4가지 중 2가지를 수행하였으나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5등급: 위의 4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였으나 일부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6등급: 위의 4가지 중 0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도 미흡한 경우

※ 각 문제별로 글자수에 제한 (800-1000자)이 있으므로, 800자 미만의 경우 각 문제별로 아래와 같이 감점한다.
700자~799자: 1등급 하향, 600자~699자: 2등급 하향, 600자 미만: 6등급 부여, 백지 답안: 7등급 부여

7. 예시 답안

【문제 1】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정보 검색과 글쓰기, 번역 등의 작업이 빠르게 자동화되면서 교육의 필요성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제시문〈가〉, 〈나〉, 〈다〉를 종합해 보면, 생성형 AI 시대에도 교육은 여전히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개인의 생산성과 사회적 역량, 그리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형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우선 〈가〉는 생성형 AI가 학습 효율성과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AI는 복잡한 개념을 쉽게 설명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기회를 확대할 가능성을 지닌다. 그러나 동시에 학생들이 AI의 결과물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한다. 이는 교육이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정보를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AI가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어도, 인간의 사고 과정 자체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또한 〈나〉의 인간 자본 이론은 교육이 개인과 사회의 경제적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교육은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이는 임금 상승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특히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급 역량과 전문성이 중요해지므로, 교육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욱 커질 수 있다. 즉, 미래 사회에서는 단순 반복 노동보다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융합적 사고력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다〉는 교육이 사회화와 공동체 형성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협력, 책임감, 규칙 준수와 같은 사회적 가치와 행동 양식을 학습하게 한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역할은 AI 기술만으로 대체하기 어렵다.

결국 생성형 AI는 교육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교육 자체를 불필요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AI 시대일수록 인간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며, 교육은 이러한 역량을 형성하는 핵심 과정으로 계속 중요성을 지닌다.

【문제 2】

생성형 인공지능은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양면적 특성을 갖는다. 〈라〉에 따르면 AI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학습 효율을 향상시키면서 지역·경제적 격차로 인해 충분한 교육 기회를 누리지 못하던 학습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AI 활용에 필요한 디지털 문해력의 차이로 인해 노년층과 정보 취약 계층들은 정보 접근성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AI가 학습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에 내재된 사회적 편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재생산함으로써 차별을 강화한다. 부올람위니의 얼굴 인식 연구와 노블의 검색 알고리즘 비판은 이러한 차별이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무엇을 표준으로 간주할 것인가라는 사회윤리적 문제임을 보여 준다.

이러한 AI의 양면성은 〈다〉의 관점을 통해 한층 분명해진다. 부르디외가 지적한 문화 자본이 학교 교육에서 특정 계층의 문화를 표준으로 삼아 불평등을 재생산해 왔듯이, 오늘날 생성형 AI는 디지털 자본을 새로운 불평등 재생산의 매개로 작동시킨다. 표면적으로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열린 듯 보이는 AI 기술이 실제로는 기술적으로 객관적일 것이라는 가설 아래에서 기존 사회가 가지고 있던 계층·세대·성별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는 것이다. AI는 기존의 데이터를 충실히 반영할 뿐이며 차별의 근원은 사회 구조에 있다는 기술 중립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일견 타당하지만, AI가 정보의 편향과 사회적 차별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다.

〈다〉에서는 교육이 사회 통합과 불평등 재생산이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AI 또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에 AI를 둘러싼 제도적·교육적 개입의 방향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AI 시대가 유발할 잠재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세대와 계층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보편화해야 한다. 또한, AI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와 학습 데이터를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제도적 보완을 통해 AI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과 사회 구성원들의 교육 기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